

[ 사회 ]

# 기반시설부담금제 12일 시행 앞두고 광주 신·개축 신청 '붐물'

### 하루 5~10건...평소보다 2배 급증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앞서 건축물 신축·개축 신청 등이 붐물을 이루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물 신축·개축 신청이 하루 평균 5~10건씩 접수되는 등 관련 민원이 평소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다.

지난달 27일과 일주일 후인 4일을 비교한 결과 동구의 경우 1건에서 5건으로 늘었고, 서구는 3건에서 7건, 남구는 1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다. 북구는 7건에서 10건으로, 광산구는 2건에서 4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평소 14건에서 28건으로 증가한 것이

다.

신·개축 신청 대상 대부분은 상가나 원룸 건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에 신·증축 신청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앞서 건축주들이 서둘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주들은 건물 신·증축 신청을 한 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거나 차후에 신청 취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내에서 건물에 신·증축할 경우 평당 18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주

▲기반시설부담금=건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오는 12일부터 첫 시행된다.

들이 100평의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천800만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나 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테러 합동훈련  
광주시는 5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31사단과 국경원, 군·경 대테러 특공대,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테러 합동훈련을 가졌다. /위정기자 jrwi@

# “을 수능 쉽게 출제”

### 교육평가원, 난이도 지난해 수준 유지

수능 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장정 원장은 5일 “올해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시행 공고와 관련, “올해 수능시험 문제도 지난해처럼 쉽게 낼 것”이라며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라면 잘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3월 말 2007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

게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뒀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장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 의사노조 국내 첫 탄생

### 전공의협, 설립허가 받아

국내 처음으로 의사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발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허가를 제출했다. 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 지 3년여만에 결국 의사의 노조가 설립된 셈이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협의회는 현재 전공의가 전국 240여개 수련 병원에 1만6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각 병원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악

용, 살인적인 강도의 근무를 강요하면서 정당한 근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하루 16시간 가량의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 100만~15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협의회는 이번 노조 설립 허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노조 설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광주·전남 대기 중금속 농도 증가

### 지하수 17% 기준 초과

광주·전남의 대기 중금속 농도가 매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5일 발간한 '2006년도 환경질량'에 의해 밝혀졌다.

△대기=지난해 1월 광주의 4개 지점에서 측정된 대기 중 카드뮴(Cd) 농도는 0.001ppm 이었으나, 연말 측정에서는 0.0033ppm으로 크게 증가했다. 크롬(Cr)과 니켈(Ni)은 지난해 1월 전혀 검출되지 않았지만, 연말에

는 각각 0.0057ppm과 0.0047ppm으로 측정됐다.

구리(Cu) 역시 같은 기간 동안 0.125ppm에서 0.4367ppm으로 증가했으며, 망간(Mn)은 0.021ppm→0.1202ppm, 철(Fe)은 0.702ppm→0.7053ppm으로 각각 높아졌다. 환경청은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 수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수=지난해 광주·전남의 지하수 66곳 중 11곳(16.6%)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승주 1지점'(순천시 해룡면)은 1㎡당 일반세균이 2천

540CFU가 검출돼 기준치(100CFU)를 무려 25배나 넘겼다. '목포 2지점'(목포시 용당2동)은 염소이온(Cl-)이 기준치(1ℓ 당 250mg)보다 8배 높은 2천29.4mg 검출됐다.

△영산강=지난해 영산강 인근의 월 평균 강수량은 115.5mm로 지난 2004년 140.8mm에 비해 25.3mm 감소했다. 이에 따라 특히 유량이 적은 광주천의 오염도가 심했다. '광주 2지점'(서구 마북동 극락교 인근)의 경우 BOD가 최고 19.6ppm(2005년 3월)에 달했고, 평균 BOD는 12.2ppm으로 나타났다. BOD란 놓고 봤을 때 5등급(8~10ppm)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임주희기자 jhljm@kwangju.co.kr

**곳곳 소나기**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7월 6일 (음 6월 11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많고 소나기	21~27℃
목포	구름많고 소나기	21~26℃
여수	구름많고 소나기	20~25℃
순천	구름많고 소나기	20~26℃
대구	구름많고 소나기	21~28℃
부산	구름많고 소나기	19~27℃
울릉도	구름많고 소나기	19~27℃
독도	구름많고 소나기	19~27℃
제주	구름많고 소나기	20~26℃
서울	구름많음	20~27℃
인천	구름많음	20~27℃
대전	구름많고 소나기	19~27℃
전주	구름많고 소나기	21~27℃
광주	구름많고 소나기	20~28℃
목포	구름많음	20~27℃
여수	구름많음	20~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9:24 썰물 < 03:15  
여수 밀물 < 04:27 썰물 < 23:57

▲해돋이 05:24 ▲해질 19:50 ▲달돋이 15:10 ▲달짐 00: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씨						
최저/최고	21/28	21/29	22/26	21/28	22/28	22/29

# 태풍 '에위니아' 8일 제주도 영향

기상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9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으며, 8일에는 9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이 920 헥토파스칼(hPa), 최대 시속 184km(초속 51m)의 힘을 갖고 있는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강풍 반경은 460km에 이른다.

기상청은 그러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면서 세력이 약화돼, 8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50hPa·강풍 반경 550km의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그러



나 8일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 5m 이상 높게 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위니아’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의 신’을 뜻한다.

태풍은 지난 1일 새벽 3시에 북서태평양 관측 남서쪽 약 1천100km 해상에서 발생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7월 7일 공무원** **부경철직** **공인 중개사**

행정직 세무직 소방직  
농업직 교보직 감찰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인중개사

40년 경력 최고 교육 전문  
노년층 중추 교육 프로그램  
합격률 높음! 합격의 열쇠!

**전남고시학원**  
www.gosihakwon.com.kr  
1993-222-5185

**실내정원**

합동 조경 511-8280

**미용그룹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미용그룹 세종 10621223-1088**

**귀하의 평생 건강에 필요합니다**

**익용식품 마카**

1998-3871